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공사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5년 05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홍 보 실

농어촌공사 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차관...식량·농촌정책 전문가

충북 진천 출신 행시 37회...정책기획·예산·농촌개발 경험
정권 알박기 인사 비판에 "전문성·비전 측면 인사권 존중"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2025.05.1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임하은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인중 신임 사장은 30여년간 농업·농촌 정책 전반을 이끌어온 정통 농정관료로, 특히 농어촌공사

와 밀접한 식량정책·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

김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을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정책기획·예산·농촌개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2017~2019년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쌀값 폭락 위기 속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현 공익형 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주역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농식품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개발을 주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촌 정비와 균형발전에 힘썼다.

김 사장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로 '알박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신임 사장은 농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성과 비전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인사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앞으로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에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임명

[송형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충북 진천 출신인 신임 김 사장은 1994년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30여년을 농업과 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 전문가라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식량정책관 재직(2017~2019년) 시 폭락했던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현재 농업 직불제의 근간이 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차관보와 차관 시절에는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을 제정하고, 농촌 공간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개발·추진했다.

취임식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서 열린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지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2대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인중 신임 사장은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2022년 5월부터 1년3개월간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추진한 농정 전문가다.

김 사장은 2017~2019년 식량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쌀값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농업직불제의 근간이 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지안 기자]

이지안 기자(cup@mk.co.kr)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군산에 Bee Happy 공원 조성

[최정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생태친화적 공간인 'Bee Happy 공원'에서 물을 주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최정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세계 꿀벌의 날'(5월 20일)을 앞두고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생태친화적 공간인 'Bee Happy 공원'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Bee Happy 공원'은 '꿀벌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공원'이라는 의미로, 꿀벌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및 생태체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원 조성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군산시,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했다. 공사 소유의 유휴부지에 라던쿨러스, 오레가노, 백일홍 등 12종의 밀원식물을 식재해 꿀벌이 찾는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했다.

김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은 "Bee Happy 공원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건강한 생태공간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산강사업단, 농번기 맞아 KRC 영농도우미 행복충전활동 시행

[봉채영]



지난 13일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양파 재배 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활동'을 실시. 사진=영산강사업단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무안군 운남면 양파재배 농가에서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지난 13일 무안군 운남면에 소재한 양파 재배 농가에서 'KRC 영농도우미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전했다.

KRC 영농도우미 활동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날 일손돕기에는 영산강사업단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양파 수확, 잡초 제거, 밭 주변 정리 등 영농활동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형수 단장은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력 확보와 인건비가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행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농 정착 지원 농촌 활력 되찾게 만들 것”

사람in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농촌의 활력을 되살려 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승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인구소멸 인한 인력부족
농촌맞춤형 ‘농지은행’으로 해결
“청년들 귀농때 일자리 창출 중요
다양한 지원 통한 지역발전 최선”**

이 지사장은 “농촌의 경우 고령화 사회와 지역 인구 소멸을 더 실감할 수 있다. 새로운 원동력이 될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천·포천·가평지사는 농정의 최일선에서 관내 저수지 14곳, 양수장

34곳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 유지와 개보수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구역은 연천군 3천188헥타르(ha)와 포천시 1천379ha 총 4천567ha다. 이 외에 고령화, 인구소멸로 인력 부족을 겪는 농촌사회 맞춤형으로 기획된 ‘농지은행’도 운영 중이다. 공사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이 사업은 은퇴농이나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지사장은 농지은행의 세부 사업 가운데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선임대후매도사업’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과원규모화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농 지

원을 통해 젊은층을 농촌지역으로 적극 유입하고, 궁극적으로 농업분야의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먼저,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소유 농지를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를 진행 시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도방식 선택 시 1ha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며 매도 시 분할 및 일시 지급 선택도 가능하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선택할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된다.

이 지사장은 “청년들이 농업을 선택하고 농촌에 왔을 때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할 일이 있어야 소득이 있다”면서 “농촌의 기반은 농업이며,



농업을 기반으로 다른 역할도 생겨날 수 있다. 우리 지사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중기자

강화 고려저수지 비상 대처 합동훈련 성료

[문찬식]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용진지사, 비상 대처 합동훈련 실시...재난 대응 능력 배양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용진지사가 '2025년 비상 대처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용진지사가 14일 강화군 내가면 고려저수지에서 '2025년 비상 대처 합동훈련'을 실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려저수지는 총저수량 431만 톤으로 885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으로 이번 훈련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저수지 제당 월류, 슬라이딩, 붕괴 상황을 가정, 주민 대피 및 응급 복구 조치를 실제로 실행, 비상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훈련에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소방서 및 내가면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주민이 참석, 비상 연락망 가동, 긴급 복구·주민 대피 훈련 등을 실시, 실제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희충 지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주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훈련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대규모 재난 대비 비상대처훈련 실시

[천정훈]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14일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소재 개심저수지에서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직원과 옥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대원 등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내용은 지진발생에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안전의식 고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재난 발생시 행동 요령, 유관기관 상황전파, 긴급 복구, 주민 대피 등 실제 상황 발생시 필요한 제반 과정을 숙달했다.



김상우 지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저수지 관련 비상대응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옥천=천정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와 전자계약이 활기를 띠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전자계약 ‘활기’

농촌공 부안지사, 태블릿·전자펜 활용 신속 계약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와 전자계약이 활기를 띠며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를 사용하던 방식을 개선해 창구의 태블릿과 전자펜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으나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계약은 고객이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 현재 계약량이 많은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우선 적용돼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번거로웠던 계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으며 고객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

부안지사는 이달 현재까지 전자계약 43건을 체결했고 디지털 창구 계약 건수는 251건에 이른다.

김완중 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농지은행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 기자
ybd3465@daum.net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025년 구산 신방저수지 비상대처훈련(EAP) 실시

[정찬남]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완도지사, 최근 해남군 현산면 구산저수지 및 신방저수지에서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긴급복구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비상대처 합동훈련(EAP) 기념촬영 / 해남완도지사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 완도지사(지사장 김대성)는 최근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구산저수지 및 신방저수지에서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긴급복구동원업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비상대처 합동훈련(EAP)을 실시했다.

특히 구산저수지는 수혜 면적 216.8ha, 총 저수 량 228만 톤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의 공중이용 시설 대상시설물이다.

본 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전보다 강도 높은 태풍 및 호우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저수지 제방 외측 사면 유실 및 월교배수장 시설물 고장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하류부 마을주민 대피 및 침수구역 차량통제, 긴급복구동원업체와 합동 긴급 복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신고 및 항구 복구 추진으로 총 4단계로 진행했다.

김대성 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에 대해 직원들의 재해 대비 능력 제고를 통한 비상 상황 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상주시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실시

[상주=피민호 기자]

행복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위해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는 14일(수) 공성읍 금계리 마을진입로 주변 환경정화 및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으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농촌마을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 농촌경관 보존을 위한 나무 가꾸기 행사도 함께 전개했다.

이한기 상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 농촌 함께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 행사를 통해 농촌마을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행복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진행

[이원석]

시설관리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위기대응능력 제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14일 영천시 화산면 소재 당지저수지와 신녕면 소재 가천저수지에서 '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은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실시해 시설관리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주의·경계·심각·종료 각 단계별 상황을 가정해 상황보고 및 비상시 지역주민 대피 및 통행차단, 저수지 제방 응급복구 등 구체적 상황을 시연해 보는 방식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오갑진 지사장은 "이번 비상대처훈련을 통해 재해상황 발생시 매뉴얼과 임무를 다시한번 더 숙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어촌공사는 "지속적으로 재해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키워 지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천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기자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저수지 재해대비 비상훈련

[김기진]



[창원=뉴스시스]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2025년 저수지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
(사진=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제공) 2025.05.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지사장 조원득)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불모산 저수지에서 '2025년 저수지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비상대처 훈련은 관할 소방서 및 긴급 동원업체와 함께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응급조치 등의 훈련을 진행해 위기대응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종) 직원 20여명은 유어면 진창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마늘종 숙아 내기' 행복 충전 활동 행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민종 지사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

가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적극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ESG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총력..."장마 전 점검·보완 마무리"

[박광온]

농업분야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회의
5~10월 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
저수지·배수로 등 농업시설 사전 점검



[세종=뉴스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업분야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업분야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각 소관 부서와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림 등 분야별 피해 예방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온도 상승과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호우와 태풍 가능성이 높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과 열대야 발생 빈도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의 노후 저수지와 배수장, 배수로,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 태양광 시설, 과수원, 시설하우스,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4월 말까지 완료했

다.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2023년 8월 10일 오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긴 가운데 119구조대가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는 습. (사진=매일신문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장마철 이전에 보완을 마무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재해 대응 상황관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 체계도 갖췄다.

농식품부는 기상 특보에 따라 농업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농가 준비사항을 문자(SMS),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여름철 작물 및 시설물 관리 요령과 폭염 대비 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여름철에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비상 상황 시 주민 대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장마 시작 전까지 재해대책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2023년 8월 11일 오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서진 우사에서 소들이 빠져나와 있는 모습. 2023.08.11. lmy@newsis.com

송미령 장관, 농촌공간 정비 추진 점검...적극 현장 행보

[임소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 청취



[세종=뉴스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ppkjm@newsis.com

[세종=뉴스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4일 경북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

[농축유통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다. 양국은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차 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하여 한국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실사하고, K-농기자재의 카타르 사막기후 현지 실증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우리측 대표단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카타르가 올해 2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전략 등 카타르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내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방안과 ▲K-농기자재의 카타르 흑서기 기간 실증 연장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협의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고, 케이(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우디에 시범온실을 착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컨소시엄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하는 등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동은 K-스마트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접하고 한국과의 정책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점 협력국가”라며, “앞으로도 케이(K)-스마트

농업 기술이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2024 한국마사회 말사진 공모전에서 '말복지특별상'을 받은 장채원 작가의 '말과의 교감'. [사진 한국마사회]

망아지부터 노령마까지 맞춤형 지원... '말 복지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 위한 대책 발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책임지는 '말 복지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동물 '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첫 중장기 로드맵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말 산업의 규모와 높아지는 동물복지 인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가 매년 시행 중인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복지 제도 인식 및 동물학대 감수성 수준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75.4%가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으며, 물리적 학대행위 외에 어둡고 좁은 장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육 또한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등 동물복지(Animal Welfare)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의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넘어서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기 승마인구는 2024년 기준 7만 명을 넘어섰고, 승마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인구는 연간 5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의 연간 방문객도 1000만 명 이상으로, 말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생산·사육되는 두수도 2만7000두에 이르며, 말 산업 종사자는 1만4225명, 사업체 수는 266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말을 통해 쉽고 활력을 얻어왔다"며 "퇴역 경주마가 승용마로 제2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승용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으로 내실 있는 말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년 1400두의 경주마가 퇴역해 승용마나 번식용,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의 평균 활동 기간이 6년 정도인 반면, 말의 평균 수명은 25~30세로, 퇴역 경주마의 활용 방안 마련과 복지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마사회와 협력해 말 등록 자율신고제 도입, 100억원 규모의 '더러브렛(경주마 품종) 복지기금' 조성, 말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반 승용마 등 일부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시설 발생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말 학대 방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다.

'말 보호모니터링센터' 설치해 취약시설 줄이는 노력도 먼저 기존 자율 신고제였던 말 등록을 의무 등록제로 전환하고, 학대 및 방치 행위 조기 발견 및 구조를 위한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한다.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즉시 통보하고 마사회 전문인력 및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확인팀을 파견해 소유주로부터 학대 말을 빠르게 격리·보호하는 등 보호 조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동물보호관(말 보호관)을 통해 지역별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방침에서 나온 대책이다.

소유주는 말 반환을 위해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할 경우 기증이나 분양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망아지 시기 각인순치, 전성기(2~7세) 및 은퇴 시기(8세 이후) 등 단계별 훈련방식을 개발해 보급한다. 특히 은퇴 경주마 중 현역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말들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거나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 훈련 등 은퇴 후 제2의 마생(馬生)을 지원한다. 또한 유명 경주마의 지역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클린업조이, 당대불패 등 유명마들이 경기도 안성팜랜드 등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 공해 말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하천상황 AI CCTV 시범 도입

[신유경]

전국 댐 저장용량 68억t 확보

신규 도시침수방지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도 확대



지난해 여름 호우로 인해 강원 원주천 둔치가 물에 잠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 여름철 홍수피해에 대비해 하천상황 인공지능(AI) CCTV를 도입하고 전국 댐 저장용량 68억톤(t)을 확보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이달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디지털트윈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홍수 발생시 직관적인 의사 결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AI CCTV도 도입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AI CCTV는 하천 주변의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CCTV를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국가하천 CCTV 2781곳 중 1000곳 이상의 지점에 AI CCTV를 시범 도입한다.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안내문자(CBS)를 발송한다. 기존에는 223곳의 홍수특보 지점에 대해 특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CBS를 통해 상황을 안내했다.

사전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무원이 직접 하던 홍수취약지구 관리를 강화전문기관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신규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을 시범 수립한다.

하천시설 일제점검,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등을 통해 하천 등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하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해 도시침수 대응력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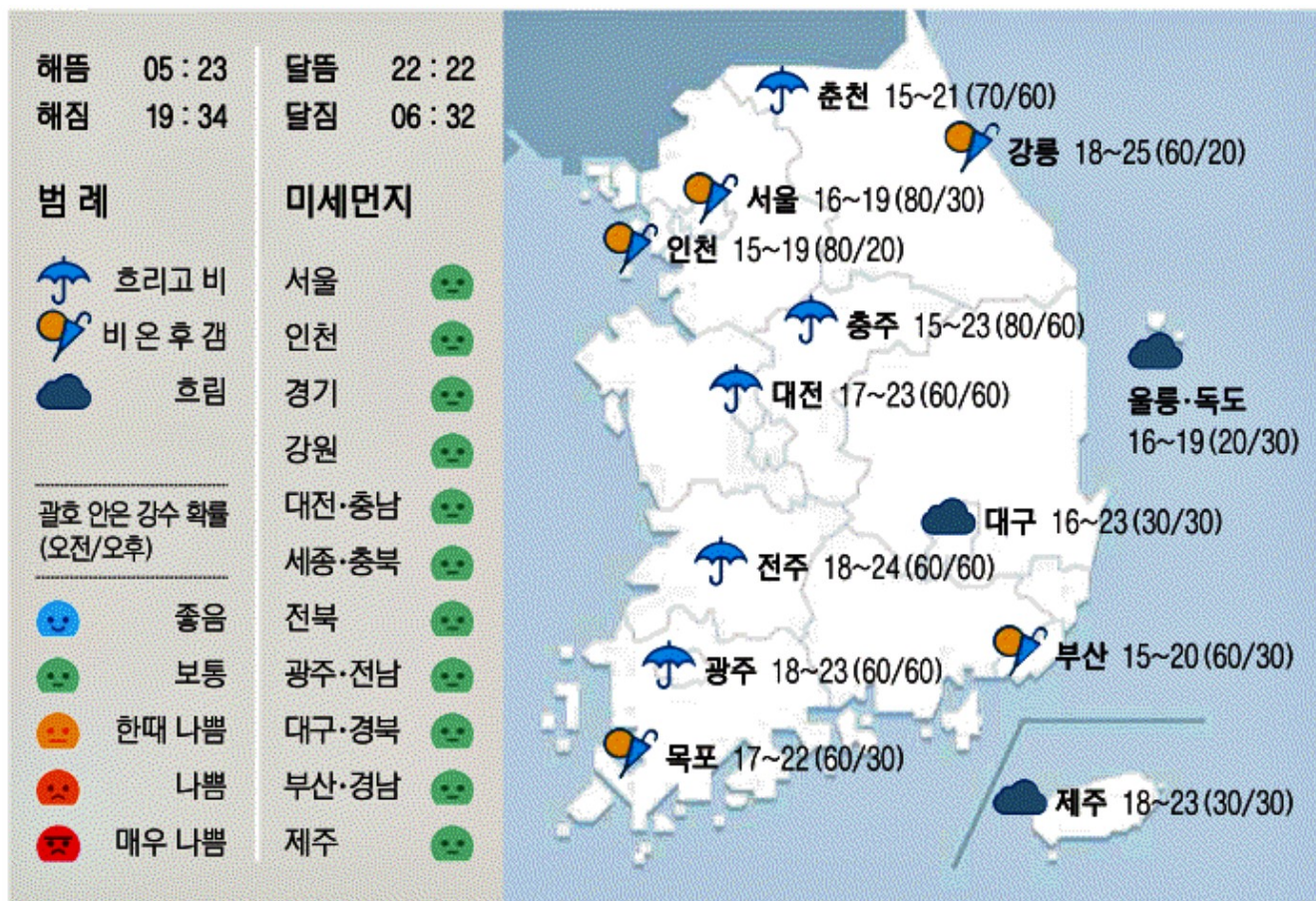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해 홍수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증량해 총 68억14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이는 20곳의 다목적댐에 평균 430mm의 비가 내려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지난해 정부가 홍수기 전 확보한 용량보다도 5억 6300만t 많은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15일 목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



케이웨더 (02) 360-2200

경향신문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019면 사람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전보 ▲소통정책관 공형식
-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정책특별보좌관 일운 스님

경향신문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019면 사람

부고

- 이병국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별세=14일 순천향대서울병원. 발인 16일 오후 2시 (02)797-4444
- 황정숙씨 별세, 고 최인호 작가 부인 상, 다혜씨·성재 에이치엘만도 부장 모친상, 성민석 AlixPartners 수석고문 장모상=1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 권순학씨 별세, 나현 삼성증권 팀장·민영 이마트 파트장·민정 웰컴저축은행 홍보팀 과장·태우씨 부친상, 이창 한국동서발전 차장·김범준 이마트 부장·박현준 디엘이앤씨 부장 장인상=14일 오전 7시 서울의료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2)2276-7692
- 장상한씨 별세, 진웅 진에어 커뮤니케이션팀장·진후씨 부친상=14일 오전 2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02)2258-5940
- 이종일씨 별세, 은경 인천일보 경제부장 부친상=14일 보람인천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 (032)568-4000
- 이치홍씨 별세, 상훈 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장훈 한국GM 차장·해은씨 (학원장) 부친상, 이은희씨(약사) 시부상, 이기홍 농협중앙회 비상계획국장 장인상=14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30분 (02)2072-2010